

〈資 料〉

倭政下 定期刊行物 所在

國樂關係記事(7)

東洋音樂研究所 資料室

◎ 目 次

佛敎와 新羅文化(李 丙 燾)72

前代朝鮮藝術의 鳥瞰圖(一記者)76

——大方諸家와 一問一答——

◎ 일러두기

- 이 글은 倭政下에서 刊行된 定期刊行物(신문·잡지)에 수록된 國樂關係記事의 轉載 七回分이다.
- 이번 輯에서는 日刊誌「朝光」을 대상으로 했다.
- 轉載에 있어 본래의 철자법과 띄어쓰기를 그대로 따랐다.
- 「朝光」, 서울 : 경성조광, 1935(영인본 서울학연사)

佛敎와 新羅文化

李 丙 燾

一

佛敎가 (傳來한 후) 東方文化史上에 어떠한 地位를 가지고, 어떠한 任務과 寄與와 影響을 끼치었으며, 또 그것이 東方文化의 盛衰消長에 어떠한 關係를 가졌든가, 이는 朝鮮佛敎史를 專攻하는 이에게는 勿論, 通히 朝鮮文化史研究에 留意하는 이로서 반드시 考察할 課題임은 나의 말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編輯자는 아마 이런 意味에서 이번 『佛敎와 朝鮮文化』란 題目으로 나에게 一文을 請하였든 것인데, 원래 여기에 積工이 없는 나로서는 이것이 容易치 아닌 負擔인 까닭에 이를 곧 謝絶하였든바, 再次 編輯者로부터

『其中 어느 한 時代를 잘라서라도 괴어코 써 보 내라』는 付託이 있어, 이에 不得已有題를 自擇한 것인데, 이 역시 나에게서는 決코 自信있는 容易한 題目이 아니지만, 이 機會에 他日 研究의 한 작은 基礎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를 草하는 것이다.

二

本論에 들어가기 前에 먼저 新羅의 政治·文化의 變遷階段에 就하여 概觀할 必要를 느낀다.

新羅(Proper)는 그 地理的 位置가 半島의 東南隅에 偏在하였던 만큼, 大陸文化攝取에 있어 高句麗 百濟 二國에 比하여 매우 뒤떨어졌고, 同時에 그 國家社會의 發展에 있어서도 部落政治로부터 國家政治에 이르기까지 매우 遲延한 歲月을 보였으며, 그러나 三國의 (하나로) 爭鬪場裏에 頭角을 나타냄으로부터는 모든 方面에 飛躍의 發展을 遂하여 마침내 統三의 大業과 高度의 文化를 열게 되었던 것이지만, 그 國運 文運의 變遷에는 대개 左表와 같이 여러 時期로 나누어 볼수 있다.

- 第一期 原始國家時代……………固有文化生長時代
- 第二期 勃興時代……………大陸文化攝取時代
- 第三期 統一時代_____
- 第四期 衰運時代_____ |…文化黃金時代

第一期는 徐伐(慶州) 六村을 中心으로 酋長政治를 行하던 때——史記의 世代로 말하면 始祖로부터 第十六代 訥解尼師今까지의 동안을 이룸이니, 이 동안에는 大陸文化의 接觸이 매우 稀薄한 대신에 固有文化의 生活을 營爲하였으며, 第二期는 酋長政治를 버서나 國家政治를 行하기 시작할 때로——第十七代 奈勿麻立干(遺事王曆(表에 依한))으로부터 第二十八代 眞德女王까지의 동안을 이룸이니, 이때에는 遠近諸國을 盛히 侵略하여 마침내 洛東江流域의 加耶聯盟諸國을 併呑하고 北으로 南北漢江流域의 濟麗故地를 領有하여 麗濟二國과 完全한 鼎立의 勢를 보이고, 此期初頃으로부터 大陸文化를 攝取하여 固有文化와의 合作을 도모하였으며, 第三期는 二十九代 太宗武烈王으로부터 五十代 定康王 때까지를 가르치는 것이니, 此期初頃에 이미 三國의 土地人民 及 法俗을 統合하여 半島의 主人公이 되고, 西으로 盛唐文化를 不絶히 輸入하여 新羅文化의 黃金時代를 이루었으나, 그대신 固有文化는 많이 退縮 혹은 消滅을 當하였던 것다. 끝으로 第四期는 五十一代 眞聖(女)王으로부터 五十六代 敬頂王 때까지를 意味한 것으로, 이때에는 新羅의 政治가 매우 紊亂하여 國內에 群雄이 割據하고 마침내 後百濟 後高麗(弓裔及王建)의 獨立으로, 前日 三國의 鼎立을 그대로 再現하다가 高麗에 統合되고 말았지만, 그 文化는 오히려 餘焰을 發하면서 後者의 繼承한 바가 되었다.

三

新羅의 佛敎傳來의 年代는 未詳하나, 史記의 傳하는 바에 依하면 訥祗王(第十九代) 때에 高句麗의 墨胡子란 중과, 또 毗處王(第二十一代 炤知王) 때에 阿道等三四人의 麗僧이 와서 民間에 傳敎하여 墨胡子는 宮中에까지 불려들어가 王女의 病을 고쳤다하며, 이리하여 차차 佛法의 信奉者가 생기기 시작하여, 法興王(第二十三代) 十五年에는 朝臣中에 異次頌과 같은 熱烈한 信仰者의 殉敎를 보게되어 드디어 信敎를 公許하였다 한다. 何如튼 新羅는 우에 表示한 第二期初頃으로부터 高句麗와의 交涉이 자졌고, 또 高句麗는 이때 國內에 佛敎가 盛行하였던 터이므로, 訥祗——毗處(炤知)의 時에 高句麗로부터 佛敎의 傳來가 있었음은 可

能한 事實에 屬하며, 그 傳來當時에 固有信仰과 의 相當한 衝突과 反撥이 있었던 것은——異次願에 關한 史話를 기다리지 아니해도 想象하여 答음이 있다. 대개 이때까지의 新羅는 他二國과 달라 오래동안 素朴한 固有文化에 生長하고 別로 外來思想의 侵入을 받지 아니하였던 까닭이다.

그러나 일단 公許된 佛敎는 國運의 興隆과 步調를 같이하여 長足の 勢로 進展하는 同時에 그 社會의 地位도 나날이 높아갔었다. 當時 新羅人에게는 佛敎의 가진 高遠한 哲學의 方面보다도 佛敎人의 勇猛進하는 人格의 修養이라던지 그 道義의 精神이라던지 祈禱發願의 低級의 信仰이 도리어 在來 傳統의 思想과의 妥協을 可能케 하였고 또 그것이 當時 發揚하는 時代精神의 要求에 迎合되어 新羅國民의 性格을 더욱 健全케 하였던 모양이다. 이때 新羅에는 花郎徒란, 固有文化란 固有文化의 아름다운 產物이 있었다. 花郎徒는 즉 原始宗教에서 派生된 一種의 修養團으로, 年少美男子(처음에는 女性)로 志行方正한 자를 團長으로 받들어 이름을 花郎이라 하고 徒衆이 모이던 것이니, 그들의 職能은 平時에는 道義(義理)와 歌樂(音樂)과 山水間의 遠遊(巡禮)로써 人格(智·情·意三方面)을 陶冶하고 同時에 人物을 試擇하여 朝廷에 바치며, 有事時에는 혹은 山岳에 들어가 天神에 祈禱하고 혹은 戰士로 從軍出戰하여 生死의 巷에 出入하여 生命을 鴻毛와 같이 가벼이 여기었다. 즉 그들은 忠孝를 基調로한 武士道의 아름다운 精神을 培養하던 것이었다. 花郎徒의 國家方面의 活躍은 대개 眞興王時代에 시작된 것으로 생각되거니와, 그들의 國運發展에 寄與貢獻한 바는 실로 컸었다. 新羅가 統三의 大業을 遂한 重要한 理由의 하나도 이 花郎徒의 活躍에 있었던 것이다. 花郎徒의 活躍에는 역시 時代精神의 剗戟과 影響이 많았던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이때 新羅는 國勢가 한참 旺盛하여 閭閻이라 모든 方面의 사람들이 活氣를 띄고 앞으로 進進하고 勇往하며, 더욱이 發奮有爲의 人物들은 『滅私奉公』 『忠孝兼全』의 道義의 精神을 鼓舞하여, 國家社會를 떠나서는 個人의 生活이 없고 個人은 團體를 爲하여 心力을 다함에서 비로소 참되고 빛난 生活을 얻는 것으로 알았었다. 이것이 이때의 時代

精神이었나니, 花郎徒의 職能과 活躍은 이런 時代精神에 依하여 더욱 커졌던 것으로, 花郎徒는 즉 이 時代精神을 代表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新羅의 佛敎는 花郎徒의——道義를 重히 여기고 卑怯未練을 戒하는——武士의 道德과 妥協의 길을 열뿐더러 그것을 더욱 發揚케하고 同時에 時代精神에 應하여 國運發展에 이바지한 바가 역시 컸던 것은 再言을 不待한다. 그리하여 僧侶로 花郎徒에 出入하고 國事國策에 頂應하는 것은 이때에 흔히 보는 事實이었다. 즉 이때의 僧侶는 佛敎徒로서의 任務外에 社會人, 國家人으로서의 任務를 兼하였던 것이다. 저 眞智王(第二十五代)時의 興輪寺의 僧眞慈는 花郎未尸郎의 徒로, 다음 眞平王時의 僧惠宿은 花郎好世郎의 徒로, 太宗武烈王(第二十九代)時의 僧轉密은 花郎文努의 徒로 다 史上에 이름이 나타나며, 그후 孝昭王(第三十二代)時에는 花郎夫禮郎의 徒에 安常이란 僧이 있고, 景德王(第三十五代)時에는 鄉歌에 能한, 特別히 『兜率歌』 『祭亡妹歌』의 作者로 有名한 月明神師가 역시 花郎의 徒이었다. 이밖에 史書에 나타나지 않는 僧侶의 郎徒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다. 歌樂이 花郎徒의 修養科目의 하나이었던 만큼, 鄉歌와 音樂은 花郎徒와 서무 떠나지 못할 關係에 있었고, 또 僧侶와 郎徒와의 關係가 密接하였던 만큼, 鄉歌는 또한 僧侶의 手に 依하여 많이 維持되고 發達되었었다. 우에 말한 月明神師를 비롯하여 이와 同時代에 『設者婆郎歌』 『安民歌』를 지은 忠談師라던지, 이에 훨씬 앞서 眞平王時에 居烈郎等 三花의 徒가 楓岳(金剛山)에 遠遊하려 할 때 마침 彗星의 出現으로 (不吉하다하여) 其行을 停止하였던바, 彗星歌를 지어 불러 곧 星怪를 滅케 하였다는 融天師라던지, 또 南岳에 隱入 하려하여 大峴嶺에 다다렸을때 六十餘人의 盜賊을 만나 『遇賊歌』를 지었다는 永才라던지, 其他 眞聖女王(第五十一代)時에 王命을 받들어 角干魏弘과 함께 鄉歌를 修集하여 『三代目』을 만든 大炬和尚(앞서 景文王時에 花郎邀元郎의 鄉歌 三首를 作曲하였다는 大炬和尚과 同一人인 듯)이라던지, 역시, 羅末의 人으로 鄉歌十一首를 오늘날에 남긴 均如大師와 같은이는 다 僧侶로 鄉歌를 善히

하여 이 方面文學에 寄與한 바가 많았던 것이다. 但大矩和尚의 撰集한 三代目이 오늘날에 傳치 아니함은 큰 遺憾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의 지은 鄉歌가 僧侶의 作으로 僧侶의 손에 傳하여 온 만큼, 佛敎의 냄새를 띤 것이 많은 것은 推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다음 僧侶로 時代精神에 頂應하여 間接 直接으로 國運發展에 貢獻한 例를 —히 든다면 번거롭기 짝이 없지만, 其中 著名한 것에만 限하여 약간들어 보기로 하자. 年代上으로 먼저 居柴夫에 對하여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居柴夫는 眞興王時의 柱石之臣으로 高句麗를 侵略하여 竹嶺以北十郡의 地를 取하며 新羅로 하여금 비로소 漢江流域의 地를 가지게 하고, 이에 조금 앞서서는 王命을 받들어 文士들을 모아 國史를 撰修한, 文武兩方面에 걸쳐 큰 功業을 세운이어나와, 그는 본시 僧侶이었다. 僧侶로 일찍이 高句麗를 窺보려고 그때에 들어가 有名한 惠亮法師에게 法을 묻고 있던바, 法師의 相占과 密告를 받아, 本國으로 돌아와, 드디어 장수가 되어, 右와 같이 竹嶺以北의 高句麗의 地를 빼냈는데, 이때 居柴夫는 오래만에 惠亮法師를 만나 그를 데리고 朝廷에 돌아와 (眞興)王에게 薦學하였다. 王은 法師를 優待하여 僧統(國統)을 삼고 그의 奏請으로 百座講會와 八關齋會를 처음으로 두었는데, 惠亮의 入國으로 말미암아 新羅의 佛敎界가 얼마나 더 活氣를 띄었던가는 너무나 想象할 수 있다. 이 點으로 보아 居柴夫는 新羅佛敎界에도 寄與한 바가 컸다고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겠다. 다음엔 眞平王時의 高僧 圓光法師의 이야기를 끄내야 하겠다. 圓光은 일찍이 中國에 留學하여 비단 三藏에 博通할뿐 아니라 儒學까지도 兼修하여 이름이 內外에 떨쳤던 이지만, 그가 歸國하여 加悉寺에 있을 때, 沙梁部人 貴山·箒項의 두 靑年이 찾아와서 益을 請하매, 法師는 『佛家에 菩薩戒가 있으나, 이것은 臣子로 出世할 사람에게는 너무도 過重하므로 特別히 世俗五戒를 주겠다』 하고, 一曰事君以忠, 二曰事親以孝, 三曰交友以信, 四曰臨戰無退, 五曰殺生有擇의 다섯가지의 德目을 指示하였다. 이 世俗五戒는 圓光이 儒術에 兼通한이 만큼—儒敎倫理의 思想(忠孝信忠等)을 그대로 나타낸 標語

로도 볼 수 있지만 실상은 (節義를 尊重하고 卑怯을 戒하는 花郎道와 같이) 그 時代精神과 國策에 頂應한 格言이라고 볼 것이다. 이 五戒를 받은 貴山과 箒項은 後日 百濟의 軍이 侵入하였을 때 함께 從軍하여, 貴山은 特別히 其父武殷의 部下로 敵兵과 싸워, 마침 武殷이 敵의 伏兵을 만나 馬上에서 討러졌을 때, 貴山은 이때야말로 五戒中 『臨戰無退』의 戒를 지킬때라 하고 드디어 敵兵數十人을 擊殺하고 自己의 馬를 父에게 進후, 箒項과 함께 勇戰奮鬪하여 滿身に 槍班을 입고 壯烈한 戰死를 하였다 한다. 이것은 史에 너무도 著名한 事實이지만, 여기에 우리는 圓光五戒에 나타나는 時代色과 五戒의 實際에 及인 影響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더욱 엿볼 수 있다. 眞平王三十年에 王이 자주 高句麗의 侵略을 입을을 患되이여 기어, 隋에 請兵하는 表文의 起草를 圓光에 命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圓光은 가로대 『自己가 살려고 남을 滅하는 것은 僧侶의 하는일이 아니다, 臣이 大王의 土地에 있어 大王의 水草를 먹으면서 어찌 命을 쫓지 아니하리오』 하고 乞師의 表를 지어 바쳤다 한다. 眞平王이 特別히 이를 圓光에게 命한 것은, 그의 文章術이 儒者文人보다도 훨씬 뛰어났던 까닭이며, 또 그가 僧侶의 道에 違反됨을 알면서도 이를 行한 것은, 勿論 나라를 위하고 金庫를 위한은 衷心에서 나온 것으로, 이 역시 佛敎徒가 國家人으로서의 責任感을 가지고 時代精神과 國策에 順應한 實例의 著名한 하나로 볼 것이다. 其他 僧侶로 國難에 際하여 法衣를 벗고 直接 從軍出戰하여 殺身報國한 例는 한둘이 아니지만, 그중에도 太宗時의 實際寺의 僧驛徒(法名道玉)와 같은 사람은 兄夫果와 弟逼實로 더불어 前後三兄弟가 壯烈無比한 戰死를 하였으므로 더욱 著名하다. 이와같이 當時의 僧侶는 단지 佛敎徒로써의 任務에만 滿足치 않고, 또한 나아가 國家의 一員으로서 活躍하기를 조와하였던 것이다.

四

以上은 佛敎人과 新羅固有文化 乃至 時代精神과의 協同에서, 國運發展에 寄與한 바를 考察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佛敎가 社會上 文化上 어떠한 地位를 가지고 그 自體에 어떠한 發達을 致하

고 다른 部門의 文化에 어떠한 影響을 끼쳤는가에 就하여 대강 말하려 한다.

佛敎를 公認한 以來, 歷代諸王의 이에 對한 尊崇 獎勵로 因하여, 處處에 寺塔이 創建되고 高僧 大德이 輩出하여 新羅는 뚜렷이 佛敎國으로 化하는 同時에 佛敎의 社會上 文化上的 地位는 점점 높아갈 뿐이었다. 國王中에도 眞興王과 같은 이는 가장 熱心한 佛敎信者이 있었기 때문에 晩年에는 머리를 깎고 法衣를 입고 法號를 法雲이라까지 하였고, 王妃도 王의 昇遐後 尼가 되어 永興寺에 居하였으며, 祿 興輪·皇龍·祇園·實際等 諸寺의 創建과 有名한 皇龍寺丈六像의 鑄成도 다 眞興王代에 되었던 것이다. 同王十二年에는 高句麗의 惠亮法師를 마지하여 國統을 삼고 그 밑에 州統 郡統을 두어 全國의 僧政을 分掌케 하였거니와, 國統(一云寺主)은 僧政機關의 最首位인만큼, 그 地位는 相當히 높았던 것이다. 善德女王時에는 更히 國統의 上位에 大國統이란 것을 두어 慈藏法師로 이에 居하게 하였으니, 大國統은 慈藏을 爲하여 둔 非常職이었다. 이때의 國統이니, 大國統이니 하는 것은 비단 僧放機關의 最高級일뿐 아니라 國王의 諮詢機關을 兼한, 政敎上的 最高顧問格에 相當하였던 것이다. 慈藏法師는 우에 말한 圓光法師와 거의 同時代의 人으로 역시 中國에 遊學하여, 二人이 다 唐의 高僧傳에 列名되어 있는만큼, 이 時代의 傑出한 人物이었지만, 慈藏은 特히 藏經一部를 唐에서 가져오고 通度寺(梁山)를 開創하여 여기를 根本道場으로, 朝鮮의 律宗을 크게 이끄는 同時에 新羅佛敎의 基礎를 鞏固케 하였으며, 또 그는 政府에 建議하여 衣冠文物을 唐制에 倣하여 施行케 하는 등 各方面으로 活躍하였었다.

그러나 大機名德의 輩出과 이에 隨伴하는 佛敎自體의 發達은 第三期初로부터——즉 唐과의 交通이 頻數히 열린 후로부터였으니, 此期初頃에 傑出한 代表的 高德은 義湘(相)과 元曉이었다. 義湘은 文武王元년에 唐에 건너가 終南山の 智儼에게 師事하여 華嚴의 妙旨를 受하고 有名한 賢首(法藏)와 同門의 高足으로 있었으며 文武王十年에 歸國여하 王命을 받들어 浮石寺(順興)를 創하고 傳敎에 專力하매, 門徒가 三千이요, 其中에

大德十人을 내었었다. 義湘의 著述에는 一乘法界圖 千載龜鏡等이 있는나, 法界圖와 같은 것은 불과 二三百言의 中에 교묘히 華嚴哲學의 要旨를 表現한 重要한 文字이다. 이와같이 義湘의 海東의 華嚴宗을 이르기어 그 門下에 多數한 高僧을 내이고 그후 法脈이 連綿하여 半島佛敎의 主流를 이루다싶이 하였다. 다음 元曉은 有名한 海東經學의 祖宗인 薛聰의 父로, 일찍이 僧이 되어 義湘과 함께 唐에 가다가 中途에서(間諜의 嫌疑로) 高句麗人에게 잡혀서 여러날 苦行을 하다가 謀免하고 돌아와 이내 遊學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후 武烈王의 寵遇를 입어 瑤石公主와 同居하여 薛聰을 生하였지만, 그는 실상 海東佛敎의 新生面을 開拓한 偉大한 人物이었다. (그아들 聰과 더불어 儒佛二方面을 각각 代表한 자미있는 對照의 存在라고 할 수 있었다) 元曉는 凡人에 뛰어난 才質로 佛敎의 各部門을 널리 研究하여 著述도 굉장히하여(總計九十二部二百三十餘卷) 오늘날 傳하는 것만으로도 大涅槃宗要, 法華經宗要, 大乘起信論疏, 金剛三昧經論과 其他十餘種의 것이 있지만, 그의 中心思想은 佛敎의 온갖 部門의 說을 한 도간이속에 녹이어 單一佛敎 統一佛敎을 曼들려는데 있었다. 즉 그는 綜合과 統一에 依한 佛敎의 眞生命·眞面目을 들어내어 이를 大衆化시키기에 一生을 바친이로, 染淨이 無二하고 動靜이 相融하고 眞俗이 相即하고 色空이 一道라는 大達觀의 境界에서 늘었었다. 말하자면 元曉는 佛敎의 革新者인 同時에 海東佛敎의 큰 特色을 들어낸 偉人이었다.

元曉·義湘以後에 半島의 高僧으로, 唐에 求法하는자—더욱 많이 圓測·憬興·道證·大賢等과 같이 堆讖의 奧義를 闡發한이도 있었고, 勝詮과 같이 華嚴—乘의 妙諦를 窮究한이도 있었고, 또 慧超와 같이 唐에서 海路로 印度에 들어가 두루 聖跡을 巡禮하고 陸路로 葱嶺을 넘어 唐에 돌아와 거기서 一生을 佛敎事業에 바친이도 있었으니, 慧超의 有名한 『往生五天竺國傳』은 즉 그가 西方歷歷中の 見聞을 적은 것으로, 貴重한 史料的 價値를 가진 것이다. 또 法朗의 門人인 神行은 唐에 건너가 北宗의 禪을 傳來하고 그후 道義는 역시 唐에 가서 南頓을 輸入하여 海東의 禪門을 열기 시

작하였다. 이리하여 新羅의 求法僧은 끊임없이 唐土의 各宗 各派의 法門을 傳하여 半島의 佛敎로 黃金時代를 이루게하는 同時에 그것을 後世에 끼치었던 것이다.

佛敎로 因하여 新羅의 文化가 高度의 發達을 遂하게 된것은 再言을 기다리지 않는 바이지만, 其中에 가장 特色을 發揮하고 기리 光輝를 남긴 것은 무엇보다도 藝術方面이니, 新羅의 藝術이야말로 佛敎藝術을 中心으로하여 發達한 것이다. 즉 堂塔伽藍의 造營, 佛像及梵鐘의 鑄造로 因하여 建築·彫刻·繪畫·鍍金術 및 其他工藝上에 非常한 進步發達을 보게되었던 것이다. 統一以前の 創造로, 新羅三寶로 꼽든 皇龍寺의 丈六尊像, 同寺의 九層塔 및 所謂眞平王의 天賜玉帶라던지, 率居의 그린 皇龍寺壁畫·芬皇寺의 觀音菩薩이라던지, 釋良志의 맨든 靈妙寺丈六三尊·天王像, 法林寺의 主佛三尊左右金剛神이라던지, 統一以後의 것으로도 景德王時에 匠人強古乃末의 맨든 芬皇寺의 藥師銅佛이라던지 또 同王時에 沈檀木과 明珠美玉으로 丈餘의 假山을 맨들어 거기에 萬佛을 完置하였다는 精巧無比의 萬佛山과 같은 것은 다 文獻上으로만 傳할뿐이요 實物은 오늘날 存傳치 아니하지만, 다늘라온 藝術品이었던 모양이다. 이와같이 없어진 藝術品도 찍어나만치만, 또한 慶州를 中心으로 오늘날까지 遺存하여 오는 大傑作品도 제법 많이 있음은 世人의 周知하는 바이다. 그 現存한 中에도 가장 新羅藝術의 精華를 發揮하여 世人의 絶讚을 받는 것은——또한 누구나 잘 아는 바와같이——저 吐舍山상의 石窟庵(石佛寺) 그것이다. 石窟庵은 그 아래의 佛國寺와 한가지 景德王十年에 大相金大城의 發願으로 起工하여 다음 惠恭王時에 이르러 完成된 것이니, 庵은 全部 花崗石으로 싸은 人造의 石窟이다. 좀 자세히 말하면 人工을 加한 石朴으로써 平面圓形에 穹隆形의 天井을 싸아 올리고, 中央臺臺 上에는 高九尺가량의 釋迦坐像을 안치고 石窟內外 壁面에는 十一面觀音·十羅漢·諸天·諸菩薩·仁王等を 陽刻한 것으로, 이들 石彫는 中央의 莊嚴端重한 本尊과 한가지 東洋에 그 比類를 볼 수 없는 뛰어난 作品이다. 其中에도 特히 十一面觀音과 梵天帝釋等은 稀世의 傑作이라 한다. 勿論 中國 印度에도

石窟이 많이 있지만, 이와같이 人造의 石窟에, 또 이렇게 (자근 規模안에서) 卓異한 手法으로 部分美全體美를 함께 나타낸 石窟은 그 類例를 볼 수 없는 것이다. 其他 佛國寺 金堂前面에 左右相對한 多寶塔釋迦塔이라던지, 元掘寺의 四面石佛, 栢栗寺의 藥師如來立像, 奉德寺의 大鍾과 같은 것은 다 역시 秀美優麗를 極한 新羅藝術의 精華로 東洋의 자랑거리라 하겠다. 近來 慶州方面에서 盛히 出土되는 當代의 遺物中에도 훌륭한 佛敎藝術品이 發見되는 것은 우리의 항상 듣고 보는 바이다.

要컨대 新羅文化는 素朴한 固有文化에 優秀한 外來文化——즉 支那文化 印度文化를 合作하여 東洋文化의 精華를 再現한 感이 있거니와, 其中에도 宗教와 藝術에 있어서는 거이 佛敎의 特點이 있으므로, 佛敎를 除外하고는 新羅文化의 大部分을 말할수 없게끔 되었다. 新羅는 佛敎로 因하여 固有文化의 退縮 혹은 消滅을 입은 것도 많았지만, 佛敎와의 協同合作으로 어느 部分의 固有文化는 그 生命을 길게 維持한 것도 더러 있었으니, 우에 말한 花郎道와 鄉歌文學以外에 本地垂迹이란 것은 즉 印度의 諸佛을 固有信仰의 對像인 名山神에 合付하여 後者를 前者(本體)의 住地로 삼아 위하는 것이니, 이 思想은 대개 新羅統一時代로부터 發達되어 後世에까지 傳來하였던 것이다. 高麗仁宗時에 僧妙淸의 奏請으로 西京(平壤) 大花宮中에 設置한 八聖堂의 八聖과 같은 것은 本地垂迹說의 高麗에 기친 뚜렷한 遺産이었다. 新羅以來의 本地垂迹說에 就하여는 다른 機會에 자세히 말하려하므로 여기에는 그만 끝이기로 한다.

朝鮮藝術界의 展望

前代朝鮮藝術의 鳥瞰圖

——大方諸家와 一問一答——

一 記者

朝鮮雅樂의 權威 咸和鎮氏와의 問答

生活와 함께 藝術은 成長하고 發展한다. 우리 先民은 果然 어떠한 藝術로 그 生活을 裝飾하고

表現하였던가 累千載의 靑史를 더듬어 그 遺什과 殘痕을 찾는 것은 決코 獨은 일이 아니며 쓸데없는 것이 아니다. 過去는 現在의 어머니라 그 母胎와 基盤을 살피고 頓整하는 것은 오늘을 的確히 認識하기 爲한 가장 緊要한 一事가 아닐 수 없다. 이런 意味에서 우리는 簡單한체로 大方諸氏에게 그 大略을 問答해야 보이는 것이 어머니와 讀者는 모름직이 한그릇물로 大海를 짐작하는바 잇기를 따라하는 것이다.

맑은 우물같이 산듯해 비는 가을하늘에도 아직 지리한 더위의 마즈막 자취가 남아있는 九月二十一日午後 비가 안오면 沙漠같이 먼지나는 서울 長安에 약타안인 電車와 巴士를 타고 朝鮮古藝術 探訪의 第一步를 教化門 앞 李王職雅樂部에 드러 노았다. 콩크리트담장의 正門을 들어서니 어딴친가 귀에익은 音律과 함께 丹青으로 彩色한 朝鮮式 모던建物이 맑은가을 해벌에 端〇하게 눈을 쏜다. 뜰과 周圍의 술과 잔티가 띄어 構內가 넓었다. 樂生五十餘名은 五年間이라는 긴 歲月每日 이곳에서 意味깊은 古典樂의 修練을 받고 있다. 李朝時代는 最高八百名の 多數한 樂師가 있었다 하는데 現在 中國에서는 오히려 斷絶된 貴重한 雅樂이 纔千餘年以上 이땅에서 興盛하야 아직도 남아있음은 그 價値를 못기보다먼저 그 奇蹟의 存在에 놀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古典의 宮中樂임으로 古來로 民間과는 何等接觸이 없었으며 今일에 누구나 西洋音樂의 趣味와 研究를 가지어 民謠의 한 句節은 다즐겨 부르는 몸으로 이 貴重한 音樂은 알기쫓아못하며 新羅磚瓦의 조각에서 時代文化 찾는 篤學者는 一般에 많으면서도 典雅優美한 이 音律속에 完全히 남아있는 朝鮮의 情緒의 深奧를 찾는이는 없게 되니 遺憾이라고 보다도 원망스럽고 痛嘆할 일이나니고 무엇이라 事務室에 들어가 李鍾泰氏의 紹介로 樂師長咸和鎭氏를 뵈니 五十 갓가와 보이는 갈냥한 몸에 藝術家의 溫情을 얼굴에 띄운氏は 記者에 못는말에 一히 親切하게 對答하여 주셨다. 左는 記者와의 一問一答 記者「雅樂의 創初와 沿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咸樂師長 朝鮮의 音樂은 四千餘年前 檀君時代에 始作된 것이나 原始音樂의 發生한 事情은 다같으나 古代의 音樂은 勿論 土俗의 일니다.

唐廣三代에나 朝鮮三國時代의 隋唐과는 民族間交通으로 彼此影響을 가지고 交換의 發達한 것 일니다. 高麗朝에 宋나라로 雅樂이 傳入하였다는 古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周時代로 붙어 傳해온 것일니다. 李朝에는 世宗朝에 이르러 禮樂이 完備되고 樂曲의 創作 樂器의 整理 改造된 新造로 大革新을 하였으며 世宗大王을 도와 蘭溪 朴堧先生의 功蹟이 많아서 後世樂聖이라고 합니다. 李朝太宗朝에는 樂人의 數八百餘名이 있었으나 其後數次의 改革으로 現在는 五十八名일니다. 樂員中 特殊한 技能을 가진 사람도 老齡其他로 年年衰頹하여 一時는 存廢의 危機까지 臨하였으나 大正八年李王職에서 學生을 募集하고 樂師를 養成하야 至今第五回의 樂生이 卒業하였음니다.

記者「功蹟있는 作曲家는 어떤 이 일니까」.

咸樂師長 이는 古來로 宮中樂이기 때문에 作曲한 이나 樂師나 高貴한 이가 많아서 例하면 世宗祖께서 創作한 樂曲이 無數하며 其他臣下가 樂曲을 짓고 樂器를 만드셨음니다. 高句麗朝宰相王山岳이라는 이나 玄琴을 製作하고 作曲도 百餘種이요 新羅伽倻國嘉實王때 于勒이라는 이가 伽倻琴을 案製한 바 이이를 第二樂聖 王山岳氏를 第一樂聖이라고 우리는 부름니다. 그러나 可惜한 일은 이들의 樂曲이 傳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李朝에 와서 世宗朝에 補弼朴堧先生을 第三樂聖이라고 부르는 이인데 作曲과 樂器改革으로 큰 功蹟을 남겼음니다.

記者「樂書와 樂曲은 어떠한 것이 있음니까」

咸樂師長 世祖朝에 樂譜를 刊行하였고 成宗朝에는 樂學軌範을 編纂한 바 東洋音樂上 特筆한 最大의 著書일니다. 樂曲의 代表될만한 것은 世宗이 지으신 泰平萬歲之曲一名與民樂이라 하는 七章과 記者樂器로 長春不老之曲一名步虛子라고 하는 亦是世宗祖의 創作인 三章인마 이는 龍飛御天歌의 歌詞에 맞추어 부르는 曲일니다. 이것은다 宴禮樂이고 또 祭樂이라고 하는것 合하야 두 種類의 것이 至今九十一曲, 百九十二曲各各 남아 있음니다. 其外歌, 詞, 調의 노래가 있고 宮中舞五十二種도 있음니다.」

記者「樂器는 至今몇種이나 있음니까」

咸樂師長「樂器는 옛적에는 七十五種이 있었으

나 今日李王家에 現存한 것은 六十種입니다. 이것은 다 數百年或은 數千年을 지난 貴重한 것인 마 中國에는 이 樂器가 다 滅失하고 따라서 雅樂이 絕滅된 것입니다. 그럼으로 이는 古來東洋音樂의 樂的情緒를 그대로 傳하고 있어 價値있는 것이 대어 있습니다. 樂器는 金部十種, 石部二種, 絲部十種, 竹部十三種, 匏部一種 土部三種革部十八種, 木部三種, 計六十種입니다.」

記者「朝鮮의 音樂 其外에 또 없습니까?」

咸樂師長「朝鮮에는 雅樂外에 俗樂이 있고 支那의 音樂이 傳來한 唐樂이 있습니다. 至今正樂이라는 것이 唐樂입니다.」

記者「樂器로 民間에서 쓰는 것은 없습니까?」

咸樂師長「雅樂中民間에서 쓰는 것은 伽椰琴類와 杖鼓 等 몇種이 있습니다.」

記者「至今巷間에도는 鉦과 喇叭等은 어떤 것입니까?」

咸樂師長「그는 高麗時代의 軍樂이 民間에 流行할 것입니까?」

記者「過去에는 一般民衆과의 接觸이 없었겠습니까마는 將來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咸樂師長「至今樂生을 養生하는 外에 樂書를 알기 쉽게 編纂하고 樂曲을 西洋式曲譜로 고치는 中인데 李王職에서 하는 일입니까?」 個人으로서는 무엇이나 할 수 없게 되었으며 將來는 一般에게 公開할 機會도 만들고 理解에 힘써 여러가지 計劃을 하는 中입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근쳐서 俗化함이 어떠냐고 말하나 그것은 너머 雅樂을 沒理解하는 생각입니다. 雅樂은 雅樂으로 價値가 있는 것이요 俗化하면 雅樂의 存在는 없어질 것

입니다. 至今月初木曜日에 定期演奏會가 있고 十一月에는 記念演奏會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디오로 中繼放送이 있는 外에는 아직 絕對로 公開하지 않습니다.

記者「雅樂을 研究하는 이가 있습니까?」

咸樂師長「現在雅樂部 以外에는 없습니다. 或日本內地서 音樂家가 訪問研究하는 이가 있고 理解하는 이가 많습니다. 前日中國서는 우정 訪問하여 自己에는 없어진 雅樂을 研究하려고 하였읍니다. 實誌를 通하여 많이 紹介하여 주십시오.」

무러보고 싶은것은 많았으나 其他에 對한 專門의 말씀은 日後에 誌上으로 發表하시겠다는 快諾을 받고 職員李龍淵氏의 引導로 樂器室과 教授을 狀況보았다. 큰 掛架에진 鍾과 玉板, 大小數十種의 碓, 絃琴琵琶玉笛等 古代의 内음새가 房안에 가득하다. 中 編磬玉板의 癸丑壬辰後에 宮中엔 이것만이 남고 다른 것은 잃어버렸든 古物이라고 한다. 얼마나 保存에 애쓴 것인가는 破損하는 者는 별기 三百 三年間流罪에 處하였었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教室에는 李朝의 斯界功勞人 蘭溪 朴堧先生의 寫眞이 있는마 講堂의 講壇에서 數人이 둘러앉아 練習에 精神없는 모양을 볼 때 自然히 尊敬에 머리를 안숙으랴 수 없었다. 다른 教室에는 時調等歌辭의 소래도 들려 마치 數百年前宮中 속에 서는것 같이 當時의 모양이 눈앞에 展開되는 듯 하였다. 現代文明의 都市인이 京城한 가운데 이러한 數千年前의 壯嚴悠長한 純東洋의 音律이 每日근치 앓고 흘러나옴은 稀貴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